

코스타리카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2011년 10월 22일 인천을 출발한 코스타리카 선교팀은 (치과, 한방, 약국, 어린이 성경학교, 사진) 긴 여정 끝에 코스타리카에 도착해서 카리브해 근처의 농촌교회 두 곳과 산호세 도시빈민촌을 두루다니며 사역하였다. 의료 진료를 받기위해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과 주민

다시 맞는 고난주일 아침에
달리실 십자가 등짐에 겨워
넘어지고 쓰러지는 주님의 두 발
그 굽은 등짝에, 내려치는 채찍 채찍질
그 속에 내 팔도 내 알몸도 보입니다
무자비한 로마 군사 고함 소리
분노에 찬 유태인의 음성 사이로
내 떨리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창으로 찢러 그 살을 찢고 또 찢어
선혈 낭자한 몸에
다시 돌팔매질하는
붉디붉은 이 손의 죄도 보입니다

들이 진료소를 찾았고 우리 선교팀은 복음을 품은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 희망이 없는 가난은 그들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생명의 말씀이 그 땅을 밝게 비추주시길 기도하며 산호세의 빈민가 좁은 골목을 누비며 전도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열악한 교통수단과 도로상황,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혜택이 거의 없는 깊은 산속 또는 빈민가에 인디언을 위한 교회와 농촌과 빈민촌을 위한 교회 16곳을 개척하여 선교공동체를 이룬 금상 호선교사를 조금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땅 끝이 왜 아름다운가?' 하는 설교에서 금 선교사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본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이 있는 코스타리카에 더 많은 단기선교와 물질후원과 기도의 동역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 김기태 집사 >

고난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_ 이희숙

1. 11월 중순에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축농증 진단을 받았으나 약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며 12월 중순까지 복용한 약으로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2월 15일 서울 와서 수술하기로 돼 있었으나 꼭 이 일을 통해 딸 부부의 믿음에 체험이 되기를 끊임없이 아침 금식 기도로 간구했더니 출발하기 직전 CT촬영 결과 씻은 듯이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2. 성령충만과 주님의 음성에 더 예민해지고 싶어서 금식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동안 열심히 다 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가정의 회복과 비염 등 고질병도 깨끗이 나아졌습니다.

3. 작년에 금식기도를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컸다. 올해도 금식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기쁨으로 나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리라고 결단을 하게 됐다. 그러나 나에게 하루 한끼 금식이 쉽지 않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심장혈관관상동맥이 4군데가 막혀 있어서 큰 수술을 하셔야 했다. 수술과 회복의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과 관계도 회복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지 않게 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됨이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아니 우리 모두(형제자매)의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친정식구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간다. 찬양할 것을 인해 감사하며 오늘도 나는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아간다.

고난주일 이 아침
나를 밟아 허물어뜨리고, 번제로 태워,
'나는 없다 없다'며, 재 속에 묻어두고,
당신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두 발만 보기 원합니다

허공의 씨줄 날줄에 달려 있는
이 허망한 목숨 구하시려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내어주신
주여, 내 아버지시여!

그 큰사랑에 온전히 내가 죽기를
내가 죽어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까닭 없는 분주로 주님 주신
내 가장 소중한 생명의 시간, 시간들
허탕한 것에 소진하였습니다
상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기도로 간구하오니, 주님
주의 크신 팔을 펼치사
등불 하나 제 가슴에 밝혀주소서
내 허물 날날이 드러나게 하소서
함부로 휘두르던 이 교만의 주먹
시비를 바꾸어 이웃에게
몸으로 지은 죄, 혀로 지은 죄
주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게 해주소서

중보기도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간증문

이사야 58:6~12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마치고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4.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어수선하고 분주한 마음이었지만,
매일 매일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눈물 닦아 주러 기도하다 내 눈물로 더욱 은혜스러웠습니다. 기도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잠잠히 사랑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며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 바라보게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 감사!!

5. 그 동안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심어주시는
일마다 기도해 왔는데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는 중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는 것을 보고 내 기도응답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커다란 기쁨이
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제게도 영적인 성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도로 뚫어야 할 영적
싸움이 많지만 이것을 통해 제 믿음을 굳건하게 하
실 주님을 찬양!!

주님의교회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학교



매주 토요일 30여명 외국인들이 8개의 클래스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 한글 능력 수준에 따라 8단계클래스로 따로 수업을 한다. 언어의 소통을 통해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 위한 공동체를 위함이다. 2년 동안 한글학

교를 거쳐 간 외국인 수가 200여명에 이르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임 사이트인 www.meetup.com/polikorean에 등록되어 있는 멤버의 수가 350여명이나 된다.

PCL 한글학교가 외국인들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한 데는 교사들의 특별한 헌신과 진심어린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활동으로 무료로 하는 봉사이지만 저희 수업의 질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 학생들이 한결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훌륭하고 헌신적인 교사들을 한글학교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3월 24일 개강 2주년 축하행사를 가지며 따뜻한 봄날 외국인들과 남산도 걸으며 비빔밥도 같이 나누며 글로벌 공동체를 가지려 한다. 앞으로도 한글학교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함께 나누시기를 기도한다. < 신형섭 기자 >

안수집사회 소식



안수집사회 봄 정기모임이 3월 18일 오후 4시 지하 중예배실에서 열렸다. 개회예배에 이어 강연과 공연이 이어졌다. 전 UN대사를 자낸 이시영 님의 “마지막 때 시니어 추수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강연과 자폐아, 발달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무지개 동산 예가원 난타팀의 공연으로 은혜

로운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식사와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교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논들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금년 16기 안수집사회 임원진은 회장 박규택 집사, 부회장 이성래 집사, 총무 유정식 집사, 회계 김두용 집사, 서기 김낙균 집사가 맡아 수고를 한다. 노대홍 기자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家庭(가정)에서의 信仰(신앙)回復(회복)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7)

家庭(가정)에서의 信仰(신앙)回復(회복)의 문자적 의미

★家(집 가): “지붕”을 뜻하는 宀(집 면)과 豕(돼지 시)로 구성되어 「지붕아래 뱀의 천 적인 돼지를 길러야 하는 것이 집이다」라고 풀이한다. 천적을 이용하여 독사의 접근을 막은 선조들의 지혜가 놀라울 뿐이다.

★庭(뜰 정): “집, 언덕”의 상징인 广(집 엄, 엄호 엄)에 “임금의 조회장소”를 뜻하는 廷(조정 정)을 합쳐 「언덕처럼 높게 지은 조정건물 앞의 넓은 마당이 뜰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교회소식 이모저모

2012년 1학기 학원선교봉사자 세미나

-영성으로 섬기는 여성지도자-

정신여중,고 학원봉사자 전체 세미나가 3월 20일 소예배실에서 열렸다. 첫 순서로 ‘영성으로 섬기는 기독교여성지도력’이란 주제로 YWCA 연합회 전 회장인신 강교자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건강한 영성으로 철저히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때 섬기는 지도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정신여고 교감인신 이희천님이 ‘우리 아이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주제로 공부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오전 강의 후 점심을 먹으며 각 팀별로 교제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박혜성 목사님과 3월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정신여중고 학원봉사는 주님의교회와 기쁜소식교회, 새문안교회, 월드비전교회 등에서 10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한다.

청년부 LETS(예비리더교육) 4기 개강



청년부 예비리더교육 훈련프로그램인 LETS(Leadership Education & Training School) 4기가 3월 17일(토) 개강하였습니다. 이번 LETS 훈련에는 27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앞

로 7주간 다양한 강의(영성, 구원, 성경, 예배, 리더십),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통한 기도와 경건훈련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섬길 뿐만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히 서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특별히 이번 LETS 4기에는 지금까지 LETS를 수료했던 지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행정적으로 섬기는 SLETS 팀이 구성되어, 청년들이 스스로 훈련을 이끌어가면서 청년 자발성을 높게 되었습니다. LETS 훈련을 통해 청년부 지체들이 헌신된 제자로 훈련될 뿐만 아니라, 청년부 공동체 전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 선교부 청계산 산행



봄 향기를 실고 불어오는 바람과 봄 햇살 가득 안은 봄빛이 머무는 3월 19일(월)에 스포츠 선교부에서 청계산 산행을 다녀왔다. 도심 가까이 드넓은 산, 함께한 교우들 유능한 산꾼들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함께 어우러지며 산행하는 동안 마음 편안해지며, 어느덧 山이 되고, 그렇게 발걸음도 당당하게 기쁜해진 모습으로 소박한 행복으로 채워 시간을 돌아서 내려 왔다. 함께한 교우들 걸으며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들 무척 즐거웠다. 스포츠 선교부에서는 매달 한번 씩 근교 산행을 진행하며 많은 교우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信(믿을 신): “인류의 총칭” 亻(人的 변형체, 사람인 변)과 “말이나 글”을 뜻하는 言(말씀 언)을 결합하여 「사람의 말에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자원을 지니고 있다.

★回(우러를 양): “인류의 총칭” 亻(人的 변형체, 사람인 변)과 “위”를 뜻하는 卩(높을 양)을 결합하여 「사람은 높은 곳을 우러러 봐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仰(돌아올 회): 소용돌이 모양의 상형문자인 回(돌아올 회)는 「에워싸인 공간에서 유체를 이동시키면 되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된다.

★復(회복할 복, 다시 부): “많은 사람, 걷다”를 뜻하는 彳(자축거릴 척, 중인 변)에 “거듭”을 뜻하는 復(되풀이할 복)이 결합되어 「갔던 길을 되풀이하여 걸어오니 옛 지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오늘의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_ 사 53:7

통 권 _ 제 299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3월 25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예배의 소망은 생명에 대한 공홀

_예배부와 안내부

일일이 챙겨야 하는 참 많은 순서

예배로 부름, 송영, 찬송, 성서교독, 참회의 기도, 사죄의 확산, 신앙 고백, 찬송, 기도, 성경봉독, 찬양, 말씀 선포, 찬송, 봉헌송, 봉헌기도, 성도의 교제, 파송의 찬양, 축도, 송영...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생각보다 많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각 부 예배마다 인도자와 기도자, 성경 봉독, 봉헌, 찬양대가 다르다. 때로 상례 인사, 아기 나들이도 있다. 올해부터 한 달에 한번, 매월 첫 주일에는 성찬식도 진행된다. 절기에 따라 초청 설교자가 있기도 하다. 주일 예배도 1, 2, 3 부와 4부는 형식이 다르다. 주일 하루에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은 찬양대와 반주자를 제외하더라도 연인원 30~40명에 이른다. 이 예배위원들을 예배부에서는 ‘역할자’라고도 부른다. 예배에서 역할을 맡았다는 뜻일 게다. 주님의교회는 따로 전용 예배공간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평일에는 정신학원의 강당으로 쓰이는 공간을, 주일에는 예배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 이 모든 절차를 기획하고, 비품과 도구를 준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배위원들을 확인하는 모든 것이 예배부의 일이다.

온전한 예배를 위한 모든 것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한 것이지요.” 올해부터 예배부장을 맡은 장득순 안수집사의 말이다. 예배부는 부장 포함 7명에 불과하다. 이 인원이 예배 준비와 진행을 도맡는다. 주말이면 강당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바꾸는 대역사가 진행된다. 강대상과 봉헌대를 제자리에 놓고, 봉헌대 위에 성경을 비치한다. 절기별로 색깔을 갖춘 내림천을 부착하고, 봉헌위원 의상을 준비하며, 무대 뒤에는 화분을 갖다 놓는다. 예배당 입구 안쪽에 성경, 찬송가, 주보, 현금봉투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며, 아기나들이와 상례인사를 할 성도들 명단을 확인한다. 주일 예배가 되면, 예배위원들이 참석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역할과 방법을 설명한 후 예배 시작 전에 접견실에 모이도록 안내한다. 때로 예배위원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남자 성도들 가운데, 급한 외부 일로 예정에 없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에 차질 없도록 대체 인원을 조치하는 것도 예배부의 소관입니다.” 이뿐 아니다.

주님의교회의 곳곳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는 말씀을 따라,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섬김의 기쁨’으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 숨은 청지기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그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예배부와 안내부 편입니다. - 편집자



예배 공간 안의 온도가 적절한지 살펴보고, 냉난방을 요청하는 것도 예배부의 일이다. 작년에는 격월로 했던 성찬식을 올해부터는 매월 첫주에 진행하는데, 오미혜 권사가 담당하는 성찬예식팀을 도와 주말마다 포도주와 같은 성찬식 물품을 준비하기도 한다.

경건한 예배를 위한 모든 일, 안내부가 맡는다

예배부가 예배의 진행과 의전을 맡는다면, 성도의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안내하는 일은 안내부가 맡는다. 성도를 맞이하고, 주보와 자료를 배포하며, 동선을 준비하고, 출입문의 통제와 실내 좌석을 안내하며,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안내부의 일이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파악하는 일도 안내부의 몫이다. “예배인원은 매월 마지막 주에 안내부 담당자들이 예배 공간에서 직접 계수합니다.” 안내부장을 맡고 있는 정종국 안수집사의 말이다. 대략 장년부 기준으로 1부에 500여 명, 2부 1,200여 명, 3부 1,700여 명, 4부 600여 명이 참석한다. 청년부를 포함하면 4,700명에 이르는 인원이다. 이 많은 성도들을 맞이 위해, 안내부 60여 명은 각 부별로 예배 35분전에 로비에 모여 기도하고, 지정된 안내 위치로 이동한다. 그날의 예배 일정과 공지사항도 미리 알아두어야 하고, 수시로 다른 예배실과 연락해서 교인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안내부의 일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적어도 본당의 예배는 그 경건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배가 시작되면 첫 번째 찬송 때까지만 입장을 허용한다. “늦어도 5분 전까지는 입장해 주시면 더 좋겠지요. 좀 늦으셨다면, 3층 공간, 제3집회실, 자모실과 같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공홀한 예배는 성도의 사명

입장해서는 강대상 앞자리부터, 의자의 안쪽부터, 네 분이 앉을 수 있도록 당겨서 앉으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겠다. 가끔은 찬양대의 송영이 끝나기 전에 퇴장하는 분들이 있어 경건한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다. 바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본당이 아닌 다른 예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배의 형식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예배의 소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일 터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목적은 생명에 대한 공홀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홀함의 사명이 없이 제사만 드린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3월 18일 박원호 담임목사의 주일 설교 중 한 대목이다. 제사는 성도의 특권이나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홀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3)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향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 편집부 >

주간 목회력

<사순절특별사백기도회>
-4.2(월)~7(금) / 새벽5:30
<성금요예배>
-4.6(금) / 오후1시

<부활절 특별예배 안내>
-4.8(주일)
-새벽연합예배 5:30
-1부 오전9:30 / 2부 오후12:30

<12단계성경공부 전체종강예배>
-3.28(수) 오후7:30 / 대예배실
<비전트립 신청안내>
-4.1(주일)까지 / 접수: 1층 로비

부활절 특별예배에 앞서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

부활절 특별예배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 부활절 특별예배 준비위원회

이번 부활절 특별예배는 예배드라마라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드라마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위해 연기, 대사, 노래, 춤, 의상, 무대장치 등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드라마에서 이런 드라마적인 요소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성도들이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할 것을 인도함으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의 세계로 이끄는 데, 이런 만남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장면에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를, 의심하는 제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장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새 생명 얻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예배 중에 함께 부를 떼제찬양**을 배워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떼제찬양은 예배드라마 장면 가운데 계시하시는 모든 말씀을 성도님들 모두가 묵상하고 신앙고백 하도록 돕는 찬양입니다. (* 떼제찬양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 당일 특별예배 때 간단한 의상**들을 준비해 오신다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스카프나 긴 치마, 남 성도님들 경우는 한쪽 어깨에서부터 반대쪽 허리까지 감을 수 있는 천을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색깔은 자유) 경험은 대단한 힘을 가집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도 좀 더 적극적인 기도와 준비를 통해 부활절 특별예배 동참함으로써 2012년 주님의 부활을 더 뜻 깊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와 함께 부활절 당일 교회에 오시면 정신여고 교문입구에서부터 특별예배팀이 성도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첫 장면으로 **김리야회관 앞 뜰에서 빌라도의 재판**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미 매수되어 성도들에게 바리새를 선택할 것을 강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뱀아달라고 부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성도님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의 한 마을과 주님의교회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은 또한 2012년 현재, 주님의교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로마 군병들과, 성문 안김리야회관 앞 뜰에 장사꾼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실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조정하는 사탄도 자세히 보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예배 전에 목사님에 의해 서역할을 받게 되는데(특히 본당에 앉으신 분들), **성도님들의 역할은 열두제자들**입니다. 예배드라마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 베드로를 맡은 그룹은 크게 ‘베드로’ 하고 대답하는 행위를 통해 여러분은 제자라는 역할을 가지고 예배에 깊숙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첫 장면은 빌라도의 재판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건물 밖에서 벌어지는 빌라도의 재판을 중계를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들은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이 말씀한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타락한 세상과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세상에 대해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후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과 혈전을 벌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 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배 전에 약속된 것처럼 성도님들은 각 제자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큰 목소리로 함께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각 제자들은 회중석에 나와서 여러분과 악수를 하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행위에 자연스럽게 극중인물처럼 반응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죄인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죄

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도 제자들처럼 이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입니다. 혹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언쟁이 일어나면 그 싸움을 구경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움직이는 비유의 말씀도 보시고, 또 화해와 화합의 장이 이루어질 때 자막에 나오는 가사를 보며 함께 노래하고, 여인들과 제자들이 나와서 춤을 유도하면 함께 호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실제로도 우리를 치유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 이미 많은 분들이 뜨겁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바라는 부분에 손을 얹고 예배드라마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장면에서는 바닷가 소리가 들리며 작은 고깃배가 나옵니다. 12제자들이 더할 나위 없이 화창한 날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도 잠시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마지막 순간에 겨우 예수님을 생각해 내고 주님을 부릅니다.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안타까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덟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낭독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군중들의 배신과 유대 의배반 등 모든 것이 복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근원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아홉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과 군중들에 의해 심한 매질과 모욕을 당하시고, 무거운 나무 십자기를 지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중예배실과 1층에서) 많은 분들은 이 장면을 중계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는 여인들도 보게 될 것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받는 예수님을 보며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떼제찬양을 통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끝나면 예수님은 본당에 들어오셔서 골고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신이 객석중앙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갈 때 성도들은 죽음을 애도하는 초를 켜고 떼제찬양 ‘주여 주 예수여’를 부르며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역할을 맡은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무대로 올라와 애도의 촛불로 밝히고, 성도님들은 모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열 번째 장면에서는 부활장면이 시작됩니다. 빈 무덤에 놀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풀어주십니다. 그 때 여러분들은 떼제찬양 ‘두려워 마라’를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열한 번째 장면에서는 그 찬양이 이어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아이들과 동물들과 천사들과 모두 함께 노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이사가야 예언한 진정한 하나님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떼제찬양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을 부르며 이 두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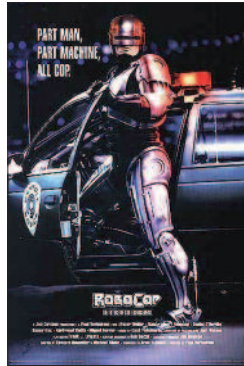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모여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마음의 죄책감과 의심을 씻어주시고 사랑과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성도님들은 떼제찬양 ‘찬미하여라’를 다함께 부르면서 남은 열한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웅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용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번 부활절 특별예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실수하는 인간이기에 스스로 자울 수 없는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통해 우리 또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기회를 얻고 새 생명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통한 부르심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부모님의 바람대로 별 저항(?) 없이 신학대학에 입학하였던 저에게는 남모르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거나 하는 저마다의 극적인 사연들을 가지고 분명한 소명의식 속에 입학했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신건지, 학기 초 신앙사경회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주는 깊은 감동과 사랑의 경험을 허락해 주셨고, 이후로 저의 이러한 열등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었는가를 신학적 배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체험의 소중함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한 확신과 깨달음이 없는 체험이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생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고민을 안고 대학생활을 보내던 중에 87년 겨울에 친구와 보게 된 당시 최고의 흥행작이었던 한편의 영화가 소명의식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저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 베히벤 감독의 **로보캅**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가까운 미래 사회에 과학의 힘으로 반은 사람이고 반은 기계(Half man Half machine)의 모습으로 폭력과 맞서 싸우는 영화제목 그대로 로봇 경찰의 활약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보캅을 보셨던 분이라면 “이 영화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단 말이 지?” 라고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저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오! 놀라워라 성령의 역사(役事)여)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사회가 장밋빛의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라 영화에서 그려졌던 것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자본의 횡포와 과학기술 문명의 폐해로 인간의 삶이 더욱 황폐해 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성직의 길에 대한 사명감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 경험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통쾌하고 강한 액션장면 보다는 그 시대의 암울한 사회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대 젊은이로서 남들과 같이 액션영화를 좋아했던 저에게는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고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이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한 부르심의 경험 후에 더욱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으며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금까지 목회의 사명을 부족하지만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길에 서서_02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있지만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부르심에 길에 서게 되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새롭게 배워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서서히, 차근차근 저를 인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학적 사고와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들은 주일학교 때 배웠던 평면적이며 단편적이었던 말씀들이 요즘의 3D 입체화면처럼 입체적이며 총체적으로 벌떡 일어서서 보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성경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깨달음과 놀라움의 시간들이었으며 그것이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제가 무슨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지 그리고 성경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깨달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지극히 작은자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목이 색달라서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신 분들에게는 전혀 제목과는 걸맞지 않은 결론 같다고 실망하셨겠지만 의외의 사건이나 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갈무리해가는 모습을 나누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뜻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 속에서 말씀 하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며 줄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배현성 목사 >

땅끝 편지_03

2012년 함줄함울에서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에 기초하여 땅끝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호 ‘나의 3개월차 아내에게’ 이후, 이번 호에서는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아빠의 편지를 실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고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실어드리겠습니다. _ 편집자

잠시 후에 만날 ‘열매’에게

네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자리를 잡은 것인지도 모르고 제한 줄로만 알고 소화제도 먹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까지도 속이 안좋다고 하는 네 엄마 말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병원엘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 엄마의 자궁 속에서 너를 빚고 계시더군요. 아기가 생기는 과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까지 받은 아빠지만 실제로 네가 내 아내의 자궁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아빠는 너무나 신기하기만 하단다. 엄마와 아빠는 네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 널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 많이 고민했단다.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엄마와 아빠는 그중에서 너의 삶이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매”라는 이름으로 너를 부르기로 했단다. 그런데 어느 날, 너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문득 열매 안에는 작은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씨앗을 만든다는 얘기라는 것을,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그 후로는 좋은 열

매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뿌려지는 좋은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다. 세상 모든 엄마아빠들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열매가 아주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길 바란단다. 그리고 바르고 지혜롭게 자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널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기도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렇게 너를 기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단다. 어느 날은 일을 하다가 문득, 네가 이 지구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다. 그리고는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열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아빠의 모습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던다. 벌써부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세상의 기준과 욕심에 따라 너에게 강요하고 조건에 따라 너를 평가하는 아빠가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단다. 하나님은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아빠는 우리 열매를 그렇게 사랑할까봐,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빠의 바른 사랑이라고

오해할까봐 지금도 아빠는 두렵단다. 교회에 등록했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 엄마와 아빠가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는 것처럼,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빠가 된 것이 아니라 너를 키우면서 나도 아빠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 열매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너를 바르고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너의 모든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할만한 믿음의 선배가 되도록 노력할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열매가 이토록 그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계획에도 없는 너의 동생에게까지 마음을 쓰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랑이 정말 마음으로 와닿고 충분히 이해가 된단다.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항상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빠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게. 너와의 만남이 아빠는 무척 기대가 되는구나. 우리 잠시 후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자~~ < 2030커플 어진원 집사 >

“선교도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입니다”

— 코스타리카에서 금상호, 김경미(잔디, 강산)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코스타리카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교회가 늘 이곳 선교를 위해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협력해 주심에 힘입어 올해도 열심히 사역해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이곳에 온지가 17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며, 처음 10년 동안의 이민 목회를 마무리하고 현지인 사역으로 전환한지도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3년은 ‘개척 선교’에 초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여러 선교적인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년은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사역 가운데 선택해가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일반적인 사역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면서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동안 한 사역들을 현지 동역자들과 더불어 안정시키면서 ‘각 지역에 맞는 성육신적 사역’을 해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 인디언/인디언 교회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꼭 저런 곳에 살아야 하나? 등 이런 저런 질문들을 받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문명에 길들여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들은 저들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해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의 필요성, 능력, 간절함 등을 더욱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귀한 교회의 도움의 손길 덕분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성경, 식량, 신발, 옷, 의료 지원, 말 구입, 양초, 학용품, 교회 건축, 태양발전기, 키타 등)을 협력하는 인디언 교회들에게는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하면서도,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저들의 가슴과 삶속에 전달하는 것임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곳을 계속 방문하고, 교제하고, 지원하고, 훈련해 가면서는 답답함에서 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아도 사랑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더 친밀해지며 그냥 주는 사역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이 멀고 힘들기도 하지만, 다시 발길이 그곳으로 찾아지게 됩니다.

둘. 초창기 교회를 개척/지원하면서 한동안 의도적으로 빈민촌 지역들만 찾아서 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을 알지만, 구제는 못해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음은 지금까지 빈민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만큼 구제도 애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빈민 지역 선교를 해 가면서 고민은 늘 ‘떡과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시대만큼 가난과 악한 일들이 더 많이 대물림되어지는 환경적인 영향들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장년들도 신경을 쓰지만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일들이 공부방, 무료급식, 토요학교, 축호 전도, 마을 청소, 교회마다 돌아가며 성경학교 등을 하면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 10년간 작은 한인 목회하면서 힘겹게 7년 정도를 건축하는데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힘들었고, 어려

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현지인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교회들을 건축/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역을 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여럿 생기면서 그때 그렇게 하신 뜻들을 나름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거나 단기 선교로 왔던 이들과 연합해서 빈민, 인디언, 지방 등 17 곳에 교회 건



축, 부분 지원, 리모델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힘든 일이기엔 이런 일은 좀 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간혹 생기기도 하지만,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그 일을 해야만 했고 그 교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교적 사역들이 확장되고,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이제는 일이 생기면 감사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계속 주어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짜증나게 한 적도 있고, 이것이 무슨 선교적 효과를 가져올까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이 스쳐 지나기도 하지만, 계속 선교를 해 가면서 선교에 대한 이해와 생각, 방법들도 다양해지고,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 자신이 선교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는 ‘주고, 주고, 또 주고...’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곳곳에서 소중히 응답과 열매들을 보면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현장에 있지만, 파송해준 교회, 선교를 계속 지원해주는 동역자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선교는 여러분들과 함께 되어지는 동역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고, 더욱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선교, 선교의 동역을 감사하게 됩니다. 새해 들어 지난 2개월 동안도 이런저런 계획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3월을 맞게 됩니다. 3박 4일간의 신약성경 읽기 모임, 두 번의 교사 교육 모임, 교도소 방문 및 수련회, 새해 협력 교회들 심방, 3박 4일간의 인디언 지도자 훈련, 차라섬 교회 건축 시작, 인디언 교회 1곳 지붕과 천정 교체 공사, 매주 월요일 목회자 모임, 매주 교회들 순방 예배, 그룹 모임 지도, 인디언 지



역과 지방 교회들 방문... 등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이곳의 땅 끝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가슴에 와 닿으면서 이어지는 선교적 현장들이 새로운 영적 땅 끝 사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곳 선교를 위

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협력해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선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먼 거리지만 선교 현장을 보다가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반응, 교제에는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정말 먼 이곳까지 교회에서 보내주신 선교팀을 통하여서 기쁨과 위로, 그리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어느 선교지든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선교의 은혜도 백문이 불여일견 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곳 선교지에서도 곳곳마다 땅 끝의 은혜와 감동, 기적, 사건들은 아직도 반복되며, 진행 중입니다. 교회와 교우 모든 분들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마감합니다.

<기도 제목들>

1. 늘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2. 현지인을 돕는 선교보다는 함께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3. 계속해서 이곳의 땅 끝들을 더 발견해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4. 함께 협력하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선교적 마음으로 같이 성장해 가며 그들의 교회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도록
5. 파송한 주님의 교회와 교회의 선교지마다 선교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이어지도록